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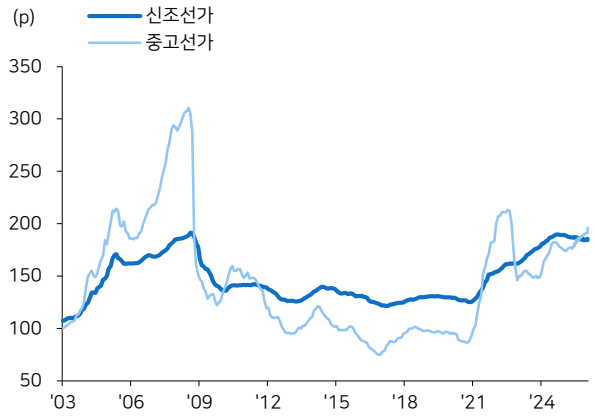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2. 4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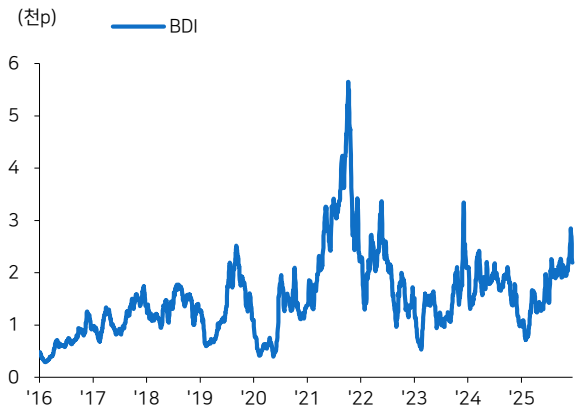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3p (-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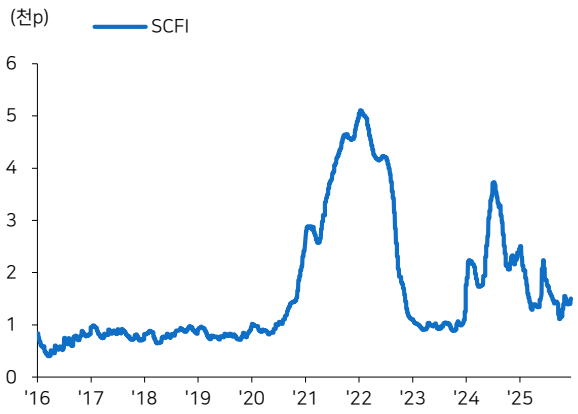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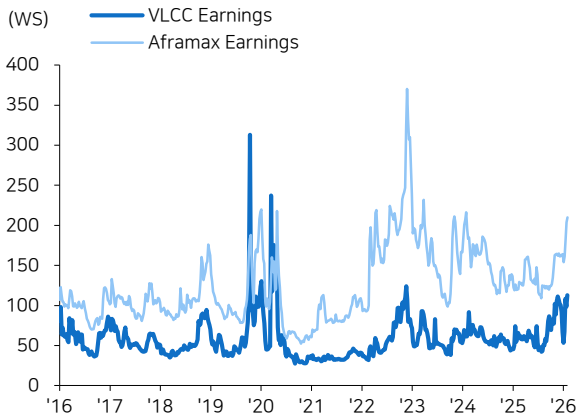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24.0p (-2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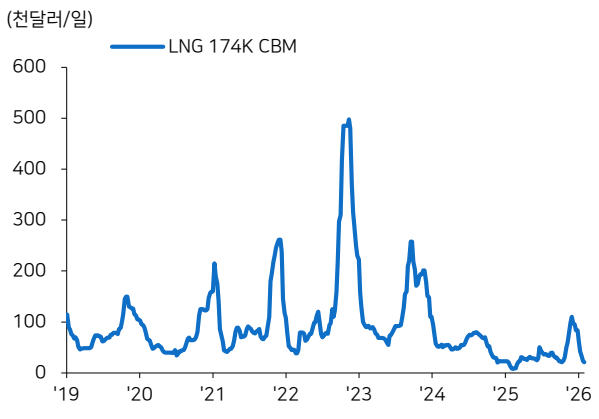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16.8p (-141.1p WoW)



VLCC Spot Rate 112.8WS (+14.4p WoW)



LNG Spot 운임 21.0천달러 (-2.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Woodside narrows down shortlist of owners for raft of LNG newbuildings — TradeWinds

Woodside Energy가 LNG 운반선 신조 물량을 용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주와 조선소 선정을 막바지 단계에서 검토 중이며, Mitsui OSK Lines, NYK, 현대글로비스, Seapeak, Dynagas, Maran Gas Maritime, GasLog 등 7곳이 shortlist에 포함됐다고 전해짐. Woodside Energy는 174,000cbm급과 200,000cbm급 LNG 운반선을 혼합해 최대 20척을 아시아향 수송과 미국 수출에 투입할 계획이며 초기 발주는 68척과 추가 옵션 4척, 인도 시점은 2029~2030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보도됨. 해당 선대 확충은 미국의 Louisiana LNG 프로젝트와 호주의 Scarborough Energy Project 추진에 맞춘 조치로, 2032년까지 약 40mtpa 규모의 LNG 생산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짐. (https://buly.kr/HHe3P4W)

EU,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나선다…"유럽산 선박·장비 우선" — 뉴스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운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선박과 장비를 조달할 때 지속가능성 및 유럽연합 역내 제조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됨. 민간 부문에서는 선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유럽연합 내 제조된 선박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투자은행(EIB)의 역할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짐.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속에서 유럽연합 역시 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알려짐. (https://buly.kr/7QNcaur)

'캐나다 잠수함 총괄' 장관, 한화에어로 방문…방산 협력도 — 이데일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총괄하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이 한화오션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 · 3사업장을 방문했다고 보도됨. 이번 방문은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인 '간접화력 현대화' 및 '보병전투장갑차',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도입 등을 앞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국 방산 생태계의 역량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짐. 퓨어 장관과 대표단은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천무 생산 라인을 둘러봤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NATO 및 Five Eyes 국가에서 운용 · 검증된 K9, 천무, Redback을 연계한 화력 · 기동 통합 솔루션을 제안했다고 알려짐. (https://buly.kr/3j9hqYD)

HD 현대중공업, 로이드선급과 3 만 CBM 급 LNG 선 공동개발 추진 — 더구루

HD현대중공업이 로이드선급과 3만㎥급 중소형 LNG 운반선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극저온 내구성과 경제성이 개선된 Hycro-flex 강재를 적용해 화물탱크 최대화와 선박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이 복원성과 도크 배치 효율을 고려한 기본 개념도를 제공하고 로이드 선급이 구조 건전성 검토와 개념설계 인증 AiP를 수행하는 구조로 알려짐. 카타르 도하 소재 카타르 국립 컨벤션 센터(QNCC)에서 열리는 'LNG 2026' 전시 기간 중 DNV와 LNG 벙커링선 및 Q-MAX 공동 개발, ABS와 Bio-Boosted LNG 운반선 개발도 병행된다고 전해짐. (https://buly.kr/AarG83B)

Industry leaders at flagship industry event forecast major growth for LNG — Upstream

QatarEnergy, ConocoPhillips, ExxonMobil, TotalEnergies, Shell 최고경영자들의 LNG 2026 콘퍼런스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LNG 생산능력이 현재 약 400mtpa에서 2030년 전후 600mtpa, 2050년에는 800mtpa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됨. 단기적 공급 과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LNG 산업은 장기 성장 산업으로, 아시아 외 유럽,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수요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QatarEnergy는 North Field 확장을 통해 LNG 생산능력을 77mtpa에서 160mtpa으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글로벌 신규 공급의 약 40%를 담당할 계획이며, 발전용 전력, LNG 벙커링, AI가 주요 수요처로 전해짐. (https://buly.kr/japJNG)

Atlas Maritime swoops on extra suezmax newbuildings after resale asset plays — TradeWinds

그리스 Atlas Maritime가 대한조선에 157,000dwt급 suezmax 확정 2척과 옵션 2척을 척당 8,600만 달러에 발주했으며, 2028년 3분기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 Atlas Maritime는 European Maritime Finance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저가에 확보한 신조선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매각하며 지난 3년간 탱커와 자동차운반선 등 17척을 약 10억달러 규모로 처분해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알려짐. 원유 탱커 시황 강세 속에 suezmax 발주가 이어지며 수주잔량이 기존 선대의 약 21%까지 확대됐다고 전해짐. (https://buly.kr/7x7tXDw)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